

# 학교폭력 대입 반영의 이면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대한민국 교육의 지형도는 2026학년도를 기점으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 입시 현장을 견고하게 지배해 온 성적 지상주의라는 성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도덕적 시민권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 대학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와 수시 전형 전반에 의무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수능 점수가 합격권을 훨씬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과오로 인해 진학이 좌절되는 사례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 ◆성적 지상주의 성벽 넘어 '도덕적 시민권의 시대'로

대한민국 교육은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입시 현장을 지배해 온 성적 지상주의가 무너지고 도덕적 시민권이라는 가치가 들어선 것이다. 대학이 학교폭력 기록을 전형 전반에 의무 반영하면서 수능 점수가 합격권을 상회해도 진학이 좌절되는 사례가 현실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인간을 인제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결단이며, 지식 습

득보다 타인에 대한 존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강력한 실행이다.

### ◆응보적 정의의 정언명령과 교육적 교화라는 상대론적 가치의 충돌

학교 가해자에 대한 입시 불이익은 두 윤리설의 대립을 부른다. 암마누엘 칸트의 절대론적 윤리설은 도덕을 결과와 상관없는 정언명령으로 규정한다. 타인을 수단화한 폭력은 도덕 법칙 위반이며 대입 배제는 응보적 정의의 실현이다. 반면 프로타고라스적 상대론적 윤리설은 청소년기의 미성숙함에 주목한다. 사춘기 시절의 과오가 평생의 나인이 되어 성장을 막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 교화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사다리를 걷어치는 처사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 ◆도덕적 이탈을 타격하고 공동체의 공감능력을 복원하는 심리학적 과제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상 청소년은 처벌 공포를 넘어 사회 규범을 내면화해야 한다. 강력한 제재는 행위의 무게를 각인시키는 자극이다. 특히 앨버트 반두라의 도덕적 이탈 개념처럼 일부 우수 학생은 폭력을 합리화하며 피해자 고통을 비인간화한다. 대입 불이익은 이러한 심리적 왜곡을 타격하며 오만한 능력주의의 종말을 선언한다. 가해자의 실패를 목격하는 사회학습 과정은 폭력 전염을 막는 방어 기제이자 공감 능력도 실험력

일부임을 학습시키는 계기가 된다.

### ◆법률 자본이 초래하는 정의의 사유화와 학교 현장의 사법화 딜레마

제도의 위력이 커질수록 이면의 그림자도 짙어진다. 학교 기록이 대입 당락을 가르자 가해 측은 행정 소송과 집행 정지를 남발하고 교사의 교육적 판단은 법적 공방의 대상이 되었다. 우려되는 점은 법률 자본의 격차가 도덕적 면죄부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마이클 샌델이 지적했듯 돈으로 사는 가치가 시장 논리에 침식될 때 정의는 무너진다. 부유한 가해자가 법률 기술을 합격하는 동안 피해자가 소외되는 상황은 정의의 사유화다. 교사 보호 장치와 감시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 ◆재통합적 수치심의 모델을 통한 회복적 향로와 인성 평가의 미래

이 흐름은 2028 대입 개편안과 맞물려 인성 평가의 고도화라는 속명으로 이어진다. 대학은 다면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찰 깊이를 읽어낼 질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 방향은 존 브레이스웨이트가 제시한 재통합적 수치심의 모델이다. 잘못을 엄중히 꾸짖되 진심으로 뉘우친 이에게는 공동체 복구의 길을 열어주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존엄의 광장으로 나아가는 회복적 향로를 설계하는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책임지게 만드는 국가 교육의 최후 보루이다. /JSS진로진학연구소장

## 청년세대와 '빚투'



기 지 수 첩  
안 승 진  
(금융부)

요즘 '빚투(빚내서 투자하기)'가 화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인증이 수도 없이 올라온다. 이 달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코스피의 상승세가 꺾였는데도,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는 여전히 뜨겁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마이너스 통장(신용 한도대출) 사용 잔액은 이달 들어 40조원을 돌파했다. 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지난 2023년 1월 이후 최대 규모다. 주요 증권사가 판매하는 마진대출의 수익금도 지난해 같은 기

관과 비교해 50% 넘게 늘었다. 신용이나 주식 등 현물을 담보로 자본금을 확보해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최근 국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반도체 산업의 장밋빛 전망에도 시장 곳곳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이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나 미래의 기업가치가 아닌, 나 혼자 뒤쳐질 수 있다는 'FOMO(포모·Fear Of Missing Out·기회상실우려)' 심리가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는 우려다. 시장이 과열될수록 가격 변동성이 확대하고, 잘못된 투자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이처럼 위험한 빚투가 만연한 가운데, 가장 위태로운 세대는 20대와 30대의 청년세대다.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비교해 금융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만큼 은행권 대출 대신 카드론과 같은 고금리 상품에 노출되기 쉽다.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비교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만

큼, 고금리 상품을 활용한 빚투는 장기간의 부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험을 무릅쓰고 빚투에 나서는 것을 고스란히 청년세대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가 청년세대에 '위험부담'이라는 타고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저축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위험자산 투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됐다.

하지만 빚투는 부채로 이어지기 쉽고, 부채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청년 세대의 미래가 위태로워지면 기성 세대의 미래도 불안해진다. 청년 세대가 단기간의 매매 차익에 매몰되기보다 자신의 수입이나 자산 상황을 고려해 자산을 분배하는 중·장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도 청년 세대의 투자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asj1231@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1일 (음 4월 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60년생 모든일에 걱정하지 마세요. 72년생 마음을 비우면 어려운 일도 손쉽게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84년생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49년생 원하는 수준만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61년생 알차고 보람있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73년생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성사 시킬 수 있습니다. 85년생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



50년생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62년생 지금은 인내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74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86년생 뒤를 돌보는 귀인이 있습니다.



51년생 힘든 상황이 많이 닦힙니다. 63년생 이것을 꼭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75년생 성실함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87년생 물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52년생 복록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64년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76년생 작은 소원이라도 결과는 크게 이루어집니다. 88년생 애정운이 아주 좋습니다.



53년생 야외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65년생 어릴 때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 보세요. 77년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89년생 근면성이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54년생 큰 공로를 세워 만인의 추앙을 받게 됩니다. 66년생 뜻하는 바대로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세요. 78년생 건강을 조심하고 무리한 일은 피하세요. 90년생 늘 배운다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세요.



55년생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67년생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79년생 여자를 조심하고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세요. 91년생 심한 언행을 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56년생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는 것이 가끔씩 화가 됩니다. 68년생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80년생 오늘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2년생 끝내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57년생 백만대군의 힘을 가질 수 있으리라. 69년생 어려운 시기가 지나 이제야 호기를 만날 것입니다. 81년생 힘든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93년생 하늘도 귀하의 뜻을 알고 돕는 형국입니다.



58년생 부와 명예가 함께 하며 기쁨이 따를 것입니다. 70년생 교육이나 상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82년생 손실만 있고 이로운 적은 신중하세요. 94년생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도 좋습니다.



59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하세요. 71년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83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이겨나가세요. 95년생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 김상회의四季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 오신 날'이 곧 다가온다. 대체휴일이 법제화된 까닭에 올 병오년 석가탄신일은 연이어 이틀이 휴일이다. 큰 사찰이나 작은 암자나 할 것 없이 꽃다운 계절에 기쁜 마음으로, 어떤 사찰에서는 산사음악회까지 열며 봉축 행사를 한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이 어디 탄신일 하루뿐이겠는가? 내 마음과 행동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따라 행하려 한다면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 석가모니는 주변의 누군가에게 자애를 베푼다면 그것이 바로 여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다. 그러하기에 석가모니가 항상 강조하는 자비회사의 마음이 함께 한다면 승속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들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인 것이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작은 월광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며 신도분들과 함께 연등을 만들고 있다.

준비된 연등 틀에 부드러운 종이로 된 초록색 양으로 두 줄쯤 밀동을 두르고 난 후 노란색, 분홍색 또는 주황이나 붉은 색 꽃잎을 올려 붙이면 마음까지 환해지는 연꽃 등이 탄생한다.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청정함은 진흙으로 대변되는 사바세계 속에서도 맑고 향기롭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발원을 담고 있다. 연등(燃燈)에 불을 밝히면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 무명(無明)을 밝혀서 고통의 원인인 어리석음과 탐욕 성냄을 밝혀서 본래의 밝은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일주일 전에 해가 저물면 제등행렬을 한다.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등들이 화려하게 빛난다. 필자의 마음엔 빈녀일등(貧女一燈)이 가장 아름답다. 간절함으로 바친 정성 부처님 오신 날이 좋은 날에 부처님 마음을 담은 등을 밝혀보시길.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4 | 3 |   |   |   | 5 | 6 | 8 |
| 6 | 8 |   |   | 7 |   | 9 | 1 |
| 7 |   |   |   | 3 |   |   |   |
|   | 9 | 7 |   | 6 |   |   |   |
|   |   |   | 5 | 9 |   |   |   |
|   |   |   | 3 | 1 | 5 |   |   |
|   |   | 9 |   |   |   |   | 3 |
| 3 | 7 |   | 1 |   |   | 8 | 4 |
| 8 | 5 | 9 |   |   |   | 1 | 2 |

|   |   |   |   |   |   |   |   |   |
|---|---|---|---|---|---|---|---|---|
| 7 |   | 4 |   | 8 | 9 | 3 |   | 2 |
|   |   |   |   |   |   | 1 | 7 |   |
| 9 | 7 |   |   |   |   |   |   | 5 |
| 6 | 4 |   | 1 |   | 5 |   |   |   |
| 8 |   |   |   |   |   |   |   | 1 |
|   |   |   | 9 |   | 8 |   | 6 | 7 |
| 5 |   |   |   |   |   |   | 2 | 4 |
|   |   | 6 | 8 |   |   |   |   |   |
| 3 |   | 5 | 4 | 9 |   | 1 |   | 6 |

|   |   |   |   |   |   |   |   |   |
|---|---|---|---|---|---|---|---|---|
| 2 | 1 | 2 | 9 | 7 | 8 | 6 | 9 | 8 |
| 7 | 8 | 6 | 9 | 2 | 1 | 9 | 2 | 8 |
| 8 | 2 | 9 | 8 | 1 | 6 | 7 | 2 | 9 |
| 2 | 9 | 1 | 7 | 8 | 2 | 8 | 9 | 6 |
| 9 | 2 | 8 | 6 | 2 | 9 | 8 | 7 | 1 |
| 9 | 8 | 7 | 1 | 9 | 8 | 2 | 6 | 2 |
| 6 | 7 | 2 | 8 | 9 | 9 | 1 | 2 | 1 |
| 1 | 6 | 8 | 2 | 9 | 7 | 2 | 8 | 9 |
| 8 | 9 | 9 | 2 | 6 | 2 | 1 | 8 | 7 |

|   |   |   |   |   |   |   |   |   |
|---|---|---|---|---|---|---|---|---|
| 9 | 2 | 1 | 2 | 6 | 7 | 9 | 8 | 8 |
| 8 | 6 | 9 | 2 | 1 | 8 | 9 | 2 | 7 |
| 7 | 2 | 8 | 9 | 8 | 2 | 6 | 1 | 9 |
| 2 | 9 | 7 | 8 | 2 | 6 | 8 | 9 | 1 |
| 1 | 9 | 2 | 7 | 9 | 8 | 2 | 6 | 8 |
| 8 | 8 | 6 | 9 | 2 | 1 | 2 | 7 | 9 |
| 9 | 8 | 9 | 1 | 7 | 2 | 1 | 2 | 6 |
| 6 | 7 | 2 | 1 | 9 | 9 | 8 | 8 | 2 |
| 2 | 1 | 8 | 6 | 8 | 5 | 7 | 9 | 2 |